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발행인 : 이계훈
E-mail: kafva-airforce@naver.com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이계훈 회장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세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강대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군과 국가가 나아갈 길은 더욱 치열한 도전과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군전우회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주요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회원 관리에



도 꾸준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하 단체 및 각 지부/지회와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을 많이 나누는 따뜻한 한 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만, 보다 많은 지부/지회와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군발전협회는 제13차 안보학술회의를 통해 '항공우주력에 의한 억제와 승리'라는 주제로 의미있는 논의를 실시

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항공우주 전략 발전에 기여하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

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져온 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첨단 항공우주력과 강한 공군력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예비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공군전우회를 만들어 세대 간 교류와 단합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에는 '화합과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군 현안 사업을 뒷받침하고,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 중앙회와 산하단체, 지부/지회, 그리고 공군발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갑시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이 계 훈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주최

2025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가 10월 28일 강릉기지에서 공군본부와 공군전우회 공동주최, 제18전투비행단 주관으로 거행됐다. 올해는 활주로 공사로 인해 기지 전 공탐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공군전우회장과 중앙회 임원, 강릉지회 회원, 부사관전우회, ROKAFIS 임원 등 전우회원들과 영동지역 부대장, 강릉부시장, 병무지청장, 보훈지청 보훈과장 등 내빈이 참석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됐다.

행사는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전투 역사, 기념사, 공군전우회장 회고사, 강릉부시장 축사, 추모헌시 낭독, 군악대 중창단 공연, 공군가 제창으로 이어

졌다. 식후에는 공군 3대 전승작전 영상 시청과 의장대 시범이 펼쳐졌다. 특히 이영하 회원(공사 22기)이 바친 시 '강릉의 하늘, 영원의 날개'를 낭독가 유순애 씨가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이계훈 회장은 회고사에서 "강릉기지는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으며, 선배들의 비행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강조하며,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강건한 공군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 당시 전투기 한 대도 없던 우리 공군이 미군으로부터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인수해 출



격을 시작한 뒤, 강릉기지에서 승호리철교 폭격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총

7,851회의 작전을 수행한 역사를 기리는 행사다.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확정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66조 2,947억 원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과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 증액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대응능력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드론 기반 첨단강군 육성에 중점 투자됐다. 특히 군 인력 운영 안정화를 위해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처음 열렸으며, 당직근무비·이사화물비 인상, 소령·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장기근속자 건강검진비 도입 등이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어나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된다. 전력운영비는 45조 8,989억 원으로 5.8% 증가해 초급간부 확보와 장기복무 유도, 중견간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처우개선에 투자된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서 전작권 전환절차 공식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절차의 2단계 검증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내년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은 정치적 결단만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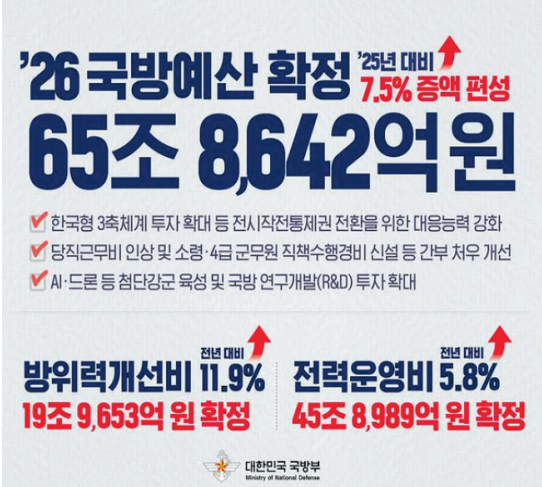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미국 전투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한미 합참의장 첫 연합 지휘비행

11월 3일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각각 KF-16과 F-16 전투기에 탑승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두 합참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이자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서울 용산 합참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종료 후 오산기지에서 출격했다.

이번 비행에는 KF-16, F-16, E-737 항공통제기 등 총 5대가 동원돼 한미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했으며, 양국 합참의장이 나란히 전투기에 올라 지휘비행을 한 것은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다. 비행 경로는 6·25전쟁 당시 첫 전투가 벌어진 오산, 국군이 최초 승리를 거둔 춘천, 국립대전현충원, 세계 최대 규모의 팽택 미군기지 상공을 포함했다.

합참은 “이번 연합 지휘비행은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새기고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같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국방추진 10대 중점과제 업무보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은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병무청은 병역관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 고도화를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2026년까지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법 시행령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군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하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전작권 회복, 미래 군구조 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10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군인 복무여건 개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군 공항 이전사업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는 국민의 군대 재건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국방부 장관 피스아이 탑승, 새해 지휘비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오년 새해 첫날, 공군 항공통제기 E-737(피스아이)에 탑승해 국산 전투기들의 엄호 속에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지휘비행에는 올해 전력을 앞둔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총 6대의 국산 전투기가 투입돼 자주국방 역량을 과시했다.

안 장관은 비행 중 해군 광개토대왕함, 공군 비행편대, 해병대 6여단, 육군 22사단 GP 등 각 군 지휘관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하며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이어 진영승 합참의장과 통화에서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와 완벽한 작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비행 후에는 E-737 운용 장병들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여러분은 ‘창공의 눈’이자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이라 치하하고, “노적성해의 신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 취임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월 1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용철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방사청 개청을 주도하고 초대 차장을 맡았던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방사청의 미션이었던 ‘고객 중심의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가이익에 기여’라는 정신을 되새기며, 신속시범사업 도입과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조직 개편, 민간 R&D 참여 확대 등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이 청장은 방산수출 20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5%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방위산업을 단순한 획득사업이 아닌 외교·안보·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설명하며, “방산은 전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중장인사 단행, 공군 3명 진급

국방부는 11월 13일 육·해·공군 소장 2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인사의 다양성을 확보해 안보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육군에서는 한기성·정영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군단장으로, 박성제·어창준·권혁동·강관범·박춘식 소장이 특수전·수도방위·미사일전략·교육·군수사령관으로 보직된다. 해군은 광관섭 소장이 참모차장, 박규백 소장이 사관학교장, 강동구 소장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공군은 권원민 소장이 교육사령관,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보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비사관학교 출신 진급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작전 외 특기 인물들도 다수 발탁돼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무청,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올해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바뀐다.

기존 자격·면허 점수 합산 고득점순 선발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병무청은 12월 18일 “병역의 무자의 입영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기술병·특기병과 달리 자격·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과거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 취득, 현월·봉사시간 확보 등 과열 경쟁이 발생해 추첨제로 개선됐다. 선발주기도 기존 ‘월 1회 선발·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카투사와 달리 공군은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술병·특기병은 기존처럼 고득점순 선발을 유지하며, 해군·해병대 일반병도 2027년부터 추첨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점수를 폐지하고, JSA 경비병 등 일부 특기를 제외한 면접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상근예비역을 보충역 대상으로 확대 총원하고, 연 단위 모집제도를 통해 시기별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평도 포격전 15주년 전승기념 행사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을 맞아 열린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 행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사에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희생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 경의를 표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포격에도 해병 전우들은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복기했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조국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참전 장병, 국방위원회 위원, 군 지휘부 등 2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배·헌화·분향·회고사·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당시 병기병으로 복무했던 이한 예비역 병장의 회고사와 전사자를 AI로 복원한 영상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했다.



예비군 100% ‘완전 예비군 대대’ 내년부터 시범 운용

국방부가 내년부터 모든 부대원이 예비군으로만 구성된 ‘완전 예비군 대대’를 시범 운용한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월 19일 발간된 ‘예비전력 정책서(2026~2040년)’에 담긴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계획의 일환이다.

정책서는 합참과 각 군,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미래 국방환경을 반영한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으로만 편성된 대대와 현역 비율 1% 이하 예비군 대대를 각각 구성해 내년부터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2040년까지 △부대유형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예비군 발전 △실전적 훈련체계 확립 △훈련장비·훈련장 과학화 △동원·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와 국방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전시 전투력 보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서울 ADEX 2025)가 10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기술과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퍼블릭데이의 열기가 이어진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데이에는 각국 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이 부스를 돌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공군 부스의 KF-16 전투기 모의 시뮬레이터 체험존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AI·무인체계·우주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화는 ‘AI Defense for Tomorrow’를 주제로 차세대 정밀유도무기와 무인지상차량을 공개했고, LIG넥스원은 위성·KF-21 무장체계·AI 기반 지휘통제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대로템은 AI·수소모빌리티와 항공우주 엔진을 최초 공개했으며, KAI는 AI 파일럿 시뮬레이터와 다목적 무인기(AAP)를 소개했다.



방사청, KF-21 추가무장시험사업 착수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지상 타격 능력을 추가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내년 말 공군에 도입될 예정인 KF-21은 이미 공대공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공대지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2월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KAI 등과 함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시험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보다 1년6개월 앞당겨 2027년부터 양산기에 적용된다. 방사청은 “공군 전력 증강은 물론 KF-21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KF-21은 이미 조종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공대공 발사시험 등에 성공했으며, 공대지 무장 시험을 위한 설계와 지상검증도 완료한 상태다.



국방부, 연내 방첩사령부 해체 완료 계획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놴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각각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옮긴다. 인사첩보·세풍수집·동향조사 등은 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1월 8일 국방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개편안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제시하며, 해외 사례처럼 정보기관의 수사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정보와 사이버보안 임무를 맡고, 기관장은 민간 인력으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신원조사와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를 받는다. 자문위는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 신설과 외부 준법감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안을 마련해 올해 내 개편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2026년도 예산 확정

국가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288억 원 증액한 6조687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규모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과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의 두 배 인상 등 보상 확대가 핵심이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도 각각 추가 인상됐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처음으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병원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권 호국원 신설 타당성 조사와 지방보훈회관 9곳 신축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또한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비 건립과 국외 현충시설 전수조사 등 보훈외교 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이번 증액이 사각지대 없는 보훈과 국민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단위 : 원)

참전명예수당 ▶	49만
무공영예수당 ▶	55만~57만
4·19혁명공로수당 ▶	50만~1000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본인) ▶	15만
(배우자) ▶	15만

공군전우회-일본 츠바사회 간 정기교류행사 실시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항공 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츠바사회(つばさかい) 회장단이 대한민국 공군전우회를 공식 방문했다.

스기야마 요시유키 회장(예 대장, 전 항공막료장)을 비롯한 10명의 대표단은 서울 ADEX 기간에 맞춰 입국해 전쟁기념관과 공군호텔 환영만찬에 참석,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전우회 관계자, 현역 인사들과 교류하며 양국 우의를 다졌다.

둘째 날에는 국방외교협회 및 방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ADEX 현장에서 주요 방산업체 부스를 방문했으며, 셋째 날에

는 도라전망대와 판문점을 찾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접 체감했다. 이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혔고, 마지막 날에는 19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항공기·무장 견학과 생도 생활관 시찰을 진행했다. 특히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여생도를 만나 격려와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했다.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은 전 일정에 함께하며 “양국 예비역 교류가 동북아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 간 유대 강화와 교류 증진에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중앙회 회장단, 공군전투부대 위문방문

공군전우회 이계훈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연말을 맞아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12월 16일 제8전투비행단과 춘천 포대를 방문한 일행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요 작전·복지시설을 확인했다. 악천후로 예정됐던 용문산 관제대 방문은 취소됐으나 유선으로 안부를 전했다. 이번 위문에는 원주지회 회장단도 함께해 항후비행단과 지회의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방문단은 건조기 1대, 세탁기 8대, 빙그레 후원 스낵류 500박스를 전달하며 장병



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했다. 이계훈 회장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동계 작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군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간담회

본회 이계훈 회장은 11월 26일 공군호텔에서 공군 순직조종사부인회(순조회) 회원 20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공중작전 중 순직한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선진 정예 공군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히 키운 순조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송우영 순조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늘 공군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하늘사랑 장학재단 출범에 기여한 장인환 전 KTB자산운



용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1976년 8월 창립된 순조회는 현재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군사관학교에 건립된 ‘영원한빛 추모탑’ 참배와 어려운 회원 지원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보라매상 수여

본회 이계훈 회장은 11월 24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해 한은택 소위에게 공군전우회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168명의 신임 장교들은 3개월간 군인화·간부화 과정을 거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지휘능력, 군사지식을 갖춘 정예 장교로 거듭났다.

임관식에는 3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김은지·김지환 소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임관한 권재욱 소위 등 화제의 인물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황희일 소위는 부사관·장교·군무원을 거쳐 다시 조종장교로 임관한 특별한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항공과학교 졸업 후 2016년 부사관으로 시작해 기상장교, 육군 군무원으로 복무하며 11년 넘게 군에 헌신했다.

황 소위는 석사 학위와 24개 자격증을 취득하며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투조종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군전우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본회 주요 연례행사인 제23회 공군전우회 친선골프대회가 11월 5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회원 1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개인전에서는 19명의 조별 우승자를 비롯하여, 근접상은 은하회 김성국, 장타상은 시니어 조종13회 황호상, 주니어 인사회 정갑순 회원이 수상했다.

단체전에서는 은하회가 우승, 관리회가 준우승, 수송회가 3위를 차지했다. 학사장

교회(250), 해동청회(100) 등 여러 단체가 총 수백만 원의 협찬금을 후원했으며, 이용빈 골프동호회장은 경품을 제공했다. 공군전우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골프장갑을 증정하고 상품권·선글라스 등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으며, 수원 체력단련장 시설 개선을 위해 티박스 매트 교체에 지원했다.

이번 대회는 23개 단체 대표선수들이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고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제253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보라매상 수여

본회 이계훈 회장이 12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53기 공군부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해 박현규 하사에게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권영민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관식에서는 279명의 신임 부사관이 탄생했으며, 국방부장관상은 김효건 하사가 받았다.

후보생들은 지난 10월 입영해 3개월간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정예부사관으로 거듭났다.

이 회장은 박 하사의 계급장을 부모와 함께 달아주며 건승을 기원했고, 아버지·형과 함께 공병건설 특기 부사관으로 임관한 오승준 하사 가족을 찾아 축하했다.



그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하사의 가족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부터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인 아버지와 형까지 3대가 군에 헌신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